

‘성숙한 사람들’의 대학

김 한 길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



2 저 ‘착한 할아버지’ 쪽으로 알고 있던 슈바이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의 글은 첫 마디부터가 무척 도발적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성숙한 인간’이라는 말이다.”

그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젊은이는 이제 그 출발점에서 항해에 필요한 이런저런 짐들을 싣는다. 그 짐에는 사랑, 정의, 우정, 자유 등의 이름표가 붙어있다. 한데 인생의 바다는 워낙 거칠고 험한지라 이 많은 짐을 싣고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 짐을 하나하나 던져버리는데, 이러기를 잘 하는 사람을 세상은 ‘성숙한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런 성숙한 인간은 자신의 목표에 남보다 앞서 도착할테지만, 불행히도 그에게 남는 건 대개 빈 배뿐이다.”

슈바이처는 사회적 ‘성공’과 진정한 인간적 ‘가치’ 사이에는 많은 경우 커다란 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치’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그저 선량한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지극히 의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부재적·실용적 사고와 태도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의 대학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우울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나는 슈바이처의 말을 떠올린다. 대학은 무엇보다도 항해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아닌가? 대학이 고시학원, 취업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다. 실제로 강연차 들렀던 어느 대학의 모습은 오늘 우리 대학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배곡이 들어찬 플래카드에는 온통 고시와 대기업에 합격한 학생들의 ‘자랑스런’ 이름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고시학원, 취업학원이라면 몰라도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대학이 정말이지 취직을 위해 학생들을 단련하는 연병장쯤으로 변해버린 것인가. 하긴 서울대마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하니 이는 보편화된 현상인 모양이다. 서울대 도서관을 둘러보면 고시 관련 서적과 영어 교재들 ‘암기’하는 학생들 일색일 뿐 전공서적이거나 문학서적, 인문·사회과학 교양서적을 읽는 학생을 찾아보기는 무척 힘들다고 한다. 강의도 마찬가지로 고시나 영어 관련의 ‘취업용’ 강좌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인문적 교양을 요구하는 순수학문 분야는 파리 날리는 신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이지 큰일이다. 이대로 간다면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는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이 땅에서 그리도 위풍당당한 서울대마저 세계에서 800위권이니 아시아 16위니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일은 이제 대학이 ‘기능’을 다루는 전문인만을 양산할 뿐 ‘가치’와 씨름하는 지식인을 잉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불임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대학에서마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저 남이 써놓은 글을 암기하는 식의 교육이—왜냐하면 취업과 고시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교육이니까—주가 된다면, 게다가 모든 학문이 돈과 권력을 향해 일렬종대로 줄서기를 한다면, 우리는 한국 대학의 발육 부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염려해야 할 날을 곧 맞게 될지도 모른다.

얼마 전에 만난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대학생들은 도대체가 말이 없습니다. 세미나식 수업을 해보려고 해도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학생이 아주 드물어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논리적·지성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말 대신 개그를 합니다. 개그는 언어의 파괴 아닙니까. 대학생들의 말이 개그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가치관’의 문제로 밤새 고민해본 경험이 생략된, 지적 도전의식을 애초에 상실한 ‘너무 일찍 성숙한 사람들’이 차가운 머리로 인생의 손익계산에 바쁜 곳, 이성의 언어 대신 개그가 활개치는 지성의 불보지—이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 아니어야 할텐데... ■

김한길/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주 한국일보 기자, 중앙일보 미주 지사장, 방송위원회 기획국장, 사무총장 등을 지내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토크쇼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총재 특보와 국회 교육위원 등을 맡고 있다. 중편 『바람과 박제』로 <문학사상>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하여 그동안 수편의 단·중·장편 소설과 수필집을 냈고, 최근 『아침은 얻어먹고 사심니까』 제하의 칼럼집을 발표했다.